



산업분석 | 금융

Analyst
박혜진

02 3779 8634

oashes@ebestsec.co.kr

금융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관련 금융권 영향

은행의 예금 및 송금업무와 신용카드사의 지급결제 업무가 타겟

-금융위는 지난 25일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발표

-총 9대 추진과제 중 핵심이 되는 부분은 1)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과 핀테크 기업에 금융결제망 직접개방, 2) 새로운 전자금융업 도입(My payment(종합지급결제업)) 3)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허용, 4) 간편결제 단말기 무상보급

-1)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은 기존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각각의 개별은행과 제휴를 맺어 결제 및 송금서비스 제공시 건당 개별은행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현재 이체 API 이용 시 이용료는 건당 4~500 원. 이를 오픈뱅킹 방식으로 전 은행의 공동망을 개발하고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 금융결제망을 직접 제공함으로써 핀테크 기업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건당 수수료를 기존의 1/10 수준으로 감소시킨다는 취지

-2) 안은, 핀테크 사업자에게 은행 제휴 없이 독립적으로 계좌를 발급, 관리하고 자금이체까지 가능하게 하는 기능으로 실질적으로 은행의 예금업무 일부 이전에 해당.

-3) 안은, 핀테크 사업자에게 신용카드회사만 가능했던 지급 결제 시 신용결제를 가능케 하는 것

-마지막으로 4) 안은, 비용 때문에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를 거부하던 가맹점에게 무상으로 단말기 지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간편결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함.

신용카드사의 고비용 상거래 구조는 완화가능, 은행 영향은 중립적

-관련 영향은, 이러한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 은행이 수취하는 수수료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규모를 800 억원으로 추정. 오픈뱅킹망은 기존 은행도 참여할 수 있으며 자기고객 외 타 은행 고객의 결제도 처리할 수 있음.

-하지만 2 안은 은행의 예금 및 결제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은행의 조달금리 상승을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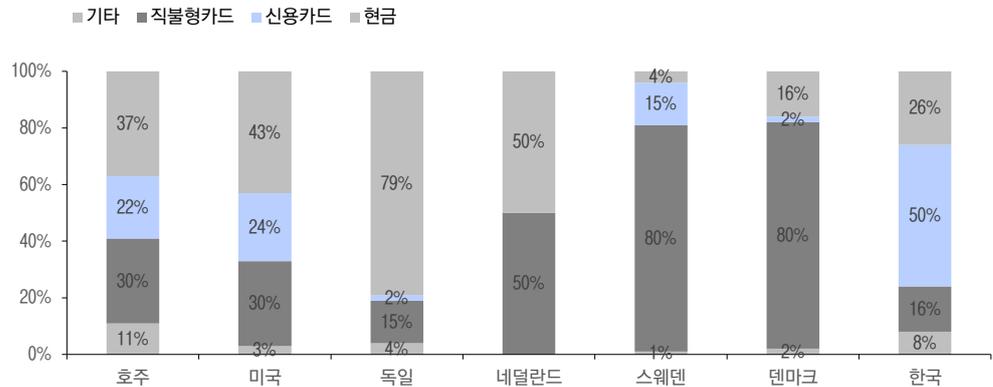
-사실 동 제도의 핵심은 신용카드사의 고비용 상거래 구조를 완화시키기 위함이 크다고 판단됨

-은행도 현재 영세한 규모의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확보할 수 있는 예금규모가 한정적일 것이고 그에 따른 자본금 확보도 요구될 것이므로 실질적 조달금리 상승에 일조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과거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했을 시 이러한 우려가 존재했으나 결과적으로 영향은 없었음. 또한 핀테크 결제사업자에게 수취하는 수수료 수준이 미약하여 은행 수익성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금융사는 이미 이러한 핀테크 업체와 기술 제휴를 맺고 있어 양쪽 산업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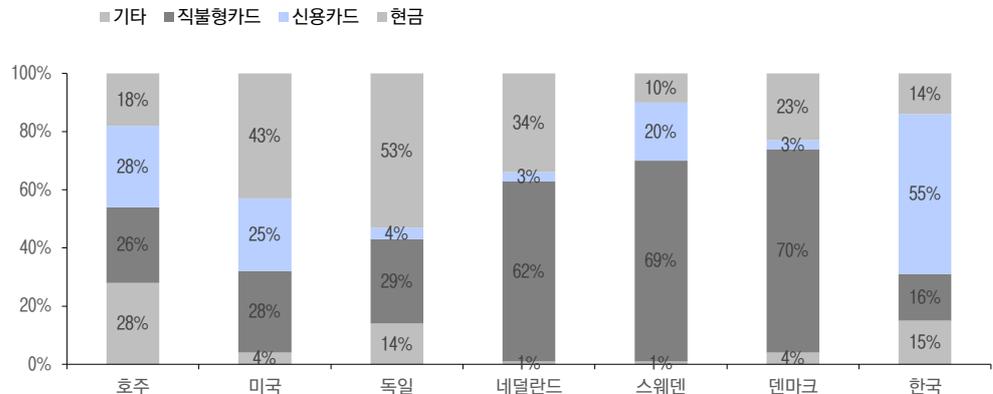
-현재 은행법에 따라 은행은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는데 핀테크 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협조를 부탁한 만큼 핀테크 업체에 대한 지분률 한도를 확대해준다면 은행권에게는 더욱 기회로 작용 가능

그림1 주요국의 지급수단별 이용비중(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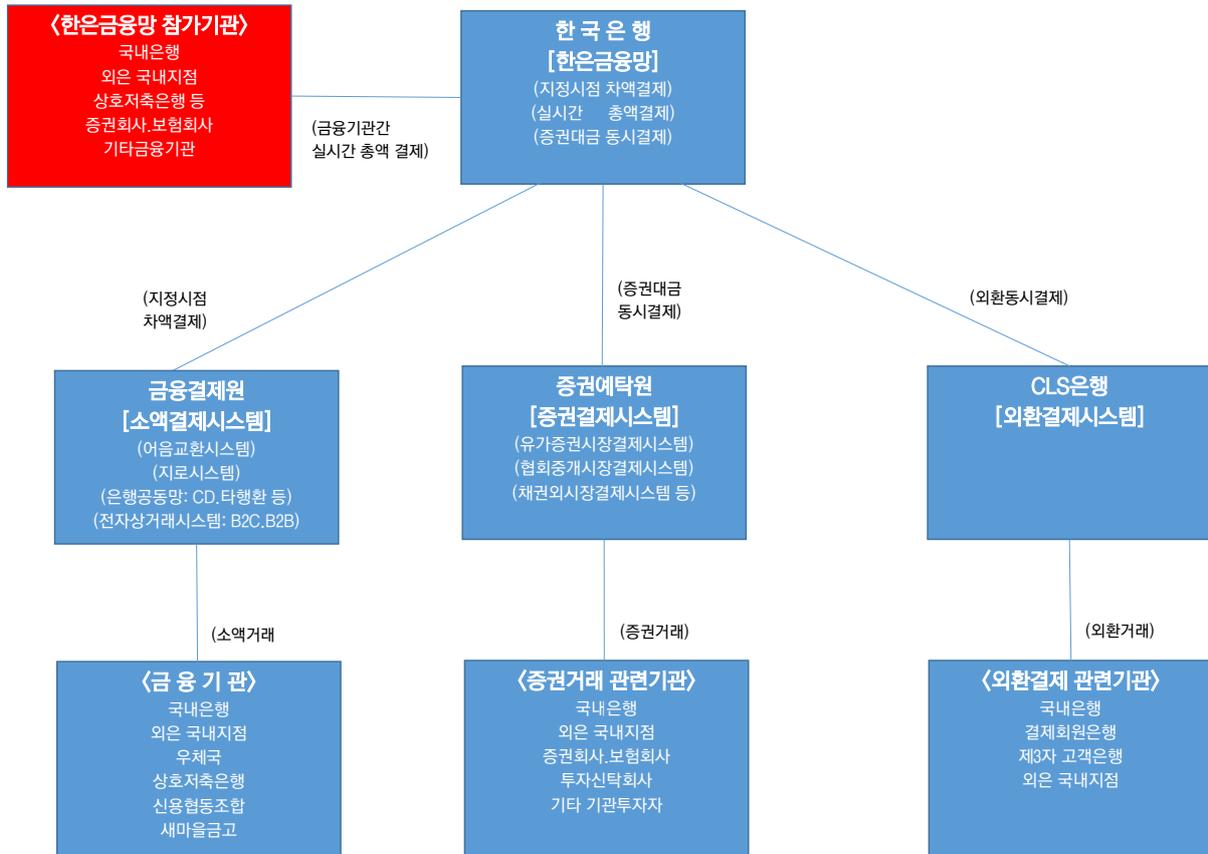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주요국의 지급수단별 이용비중(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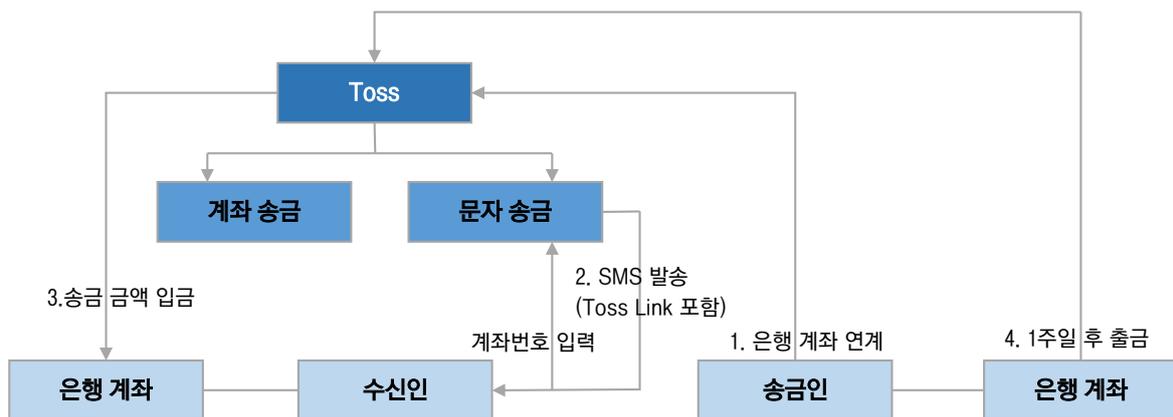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구조



자료: 한국은행,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토스 간편송금 서비스 흐름도



자료: 감사연구원,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1 금융위원회 지정 금융회사-지정대리인(핀테크업체) 서비스 개요

핀테크기업	매칭 금융사	기술분야	서비스내용
빅벨류	KEB 하나은행	빅데이터·AI	국가 공공데이터 등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시세·담보가치 산정
핀테크	KEB 하나은행	빅데이터·AI	온라인상으로 고객의 간단한 인증만으로 자동차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취득하여 AI 모형으로 자동 심사
에이젠글로벌	우리은행	빅데이터·AI	AI 예측모형을 기반으로 개인신용대출 신청 건에 대해 평가점수와 대출금리 산정
피노텍	우리은행	온라인플랫폼	대환대출을 처리하는 신·구 은행간 대출상환금 조회 및 상환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대환대출 플랫폼 운영
NH 은행			
집핀드	SBI 저축은행	빅데이터·AI	아파트 세시 빅데이터(개별 동호수 단위 세부정보) 및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아파트 담보대출 심사
핀다	SBI 저축은행	온라인플랫폼	대출자가 원하는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금융회사들이 거래여부를 제시하는 대출 억제안 방식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한국어음중개	삼성카드	빅데이터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전자어음)에 대한 할인 신청을 받아 자체평가시스템을 통해 심사
아이패스	BC 카드	바이오정보	고객 홍채정보를 제공받아 카드(실물 X) 즉시발급 및 바이오인증을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제공 (카드, 스마트폰 없이 바이오정보만으로 결제)
스몰티켓	한화손보	인슈테크	위험보장이 필요한 틈새분야(고령견 펫보험)에 대한 건강정보 확인·분석을 통해 인수심사 고도화 및 맞춤형 상품 개발에 활용
어브로딘	KB 은행	온라인플랫폼	어학연수 중개,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거래 외국환 은행지정, 해외은행 계좌 개설 대상 유병력자에 대한 보험 언더라이팅에 필요한 정보(검진기록 등)를 수집·분석하여 보험사에 제공
투비콘	신한생명	인슈테크	(유병자가 스마트폰 앱 설치→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온라인상 자료 추출→보험사에 자료제공)

자료: 금융위원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2 혁신 방안 관련 종합적 기대 효과

		현행	개선
인프라	결제문화	신용카드 중심의 고비용 결제 문화	비용은 낮고, 편리성은 높은 직불, 간편결제 문화
	결제방식	실물카드 중심	QR 코드, NFC, 바이오 등 다양한 결제방식
소비자	결제시장	단순 마케팅 경쟁	기술, 서비스 혁신 경쟁
	편리성	은행앱으로는 해당 은행 계좌에서만 결제, 송금 가능 핀테크기업 앱은 소수에 불과 → 선택권 부족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의 자기계좌에서 결제, 송금 등 가능 은행과 핀테크기업의 다양한 금융플랫폼 선택가능
	혜택	결제수단이 한정적이고 소비자 혜택도 제한적	결제 수단이 다양화 되고, 소비자 이용 혜택도 강화
	외국결제	해외에서 국내 간편결제 이용 불가(국내결제전용)	해외에서 별도 환전 없이 국내 간편결제 이용 가능
	대중교통	이용 불가	이용 가능
	이용한도	200만원 → 가전제품 등 내구재 결제에 제한	300~500만원 →결제 가능 범위 확대
	후불결제	불가(일시적 자금 부족시 결제 불가)	소액 범위내 가능(일시적 자금부족시 결제 가능)
판매자	결제시 혜택제공	수수료 저렴한 간편결제에 신용카드 보다 더 큰 혜택 불가	수수료 저렴한 간편결제에 신용카드 보다 더 큰 혜택 가능
	단말기 보급	새로운 결제수단 단말기는 가맹점이 직접 구입	새로운 결제수단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
	은행	자기 고객에 대해서만 결제, 송금 서비스 가능	자기고객 외 타은행 고객에 결제, 송금서비스 가능
핀테크기업	은행결제망 이용을 위해 모든 은행과 제휴를 맺고, 높은 비용을 지불	대출, 자산관리 서비스 등 연계를 통한 금융플랫폼 가능 공동 결제 시스템을 통해 별도 제휴 없이 저렴하게 은행 결제망 이용 가능	

자료: 금융위원회,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박해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15% 이상 기대	96.4%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20%에서 ±15%로 변경
		Hold (보유) Sell (매도)	-15% ~ +15% 기대 -15% 이하 기대	3.6%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18. 1. 1 ~ 2018. 12.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